

인자 II

오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는 데에서 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 : 23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¹

마가복음 2 : 2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마가복음 2 :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가복음 2 : 26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가복음 2 : 27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 : 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눅 6:5 ; 마 12:8)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마다 감격으로 이 구절을 읽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절을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 : 27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 : 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의 안식을 위해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계율을 만들어 그 것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신앙 활동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격히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보면 거룩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율을

¹. 민 23:24-25

만들어, 그것을 사람의 어깨 위에 올려 놓고 그것을 잘 지키면 종교적 사람이라 존경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처벌하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전통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만이 하실 수 있는 권위의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은 이런 종교적 계율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식을 위해 주신 것이다. 안식일이 종교적 계율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이 된다. 그러나 안식일은 사람의 육체의 휴식과 영혼의 재충전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선언은 유대교적 배경에서는 혁명적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일 뿐 아니라, 보통 사람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데까지 확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과 같은 보통 사람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자와 보통 사람을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우리과 같은 보통 인간과 동일시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마가 복음 2:27-28 을 읽으면 인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 : 27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 : 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런데 사람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인자를 우리과 같은 보통 사람과 동일시 하십니다. (동일시하였다는 것이지 우리과 같은 흠에서 온 인간이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되기 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알게 됩니다. . 이것이 깊고 깊은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인간이 되기 까지 내려오신 인자를 통해, 우리과 같은 보통 사람이 인자 안에서 신적 경지에까지 승귀하는 우리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 안에 감추어진 깊은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하는 것, 사람의 육체의 휴식과 영혼의 재충전을 위해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생명의 고양을 위한 일은 하여도 된다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해도 된다고 하는것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고양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 : 10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마태복음 12 : 1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2 :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2 :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의 고양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에게 유익한 일, 선을 행해도 된다고 하는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은 안식일에도 최선을 다해 많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는 말의 확장적 해석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자는 메시아의 다른 명칭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인자는 사람이긴 사람인데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의 신인적 속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신인적 속성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인자는 메시아의 다른 명칭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기 위해 메시아의 신인적 속성에 대해 먼저 공부를

해 보십시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유명한 구절을 하나 찾아 보면,

이사야 9 :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이 구절에서 메시아의 인성을 말해 주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메시아가 인간인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기고 태어나 점점 성장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을 말하는 것으로, 메시아의 인성을 말합니다.

다음에 메시아의 신성을 말해 주는 구절은 어느 것입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태어날 아기에게 하나님에게만 돌려 질 수 있는 모든 신적 명칭이 부여됩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키며, 메시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이와같이 메시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됩니다. 메시아는 신인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온 사람인 인자의 신인적 본성과 한치의 차이도 없이 같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여기셨으면서도, 메시아라는 말보다는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시기를 즐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메시아보다는 인자의 명칭을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해받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약 600 년간을 나라의 주권을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와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해 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로 오해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마태복음 20 : 28 인자가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메시아 대신 인자의 명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질문)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